

2019학년도 9월 고3 영어 영역

+5점 특강

이경보

해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능을 잘 보기 위해 필요한 팁을 위주로 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만 잘 익혀도
5점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해석도 얼추 하고 지문도 꽤나 봤는데
점수가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9평 이후, 해설 칼럼을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해설 강의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 순수하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편입영어를 공부했고 이후엔 강의도 했습니다.
[어휘/문법/논리/독해] 영역 중, [문법/논리/독해]를 강의했었습니다.
공부할 때와 강의할 땐 미국 일반대학원 시험인 GRE라는 걸 소스로 했습니다.
GRE와 편입영어의 꽃은 'sentence completion'이고 보통 업계에선 '논리'라고 말합니다.
'논리'라는 건 수능의 빈칸 유형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He is a strong believer in quantity over quality.
He does not complain about the dinner if the serving is **generous**.

위 문장에서 generous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양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불평하지 않는 상황은 양이 많을 때겠죠.
그래서 generous의 문맥상 의미는 '양이 많은'입니다.
위 문장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정도의 쉬운 문제입니다.

편입 영어는 대한민국 영어시험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쪽에서 통용되는 여러 기법을 수능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성격이 다르고 아무래도 편입 영어가 더 범위가 넓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편입영어에서 쓰이는 기법 중 핵심적인 것 몇 개를 수능에 적용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놀랍게 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후인과 관계는 편입에선 중요하지만
수능에선 오히려 too much information이 되기 때문에
수능 수업하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후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지문과 선지가 늘더군요.
대처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후인과 관계에 대한 짚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설명은 해석은 조금 됐는데 지문 이해가 잘 안 됐다,
혹은 정답이 바로 안 보였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만 선별했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애긴 좀 빼고,
지문에서 크리티컬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해설 강의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금방 몇 분 만에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용어 설명

G : general의 약자. 포괄/종합/추상적인 내용
D : Detail의 약자. 구체/예시/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D1 : 첫 번째 구체/예시/원인
D2 : 두 번째 구체/예시/원인

인과관계 따질 때
'어휘력'을 원인으로, '수능 1등급'을 결과로 두었습니다.
어휘력 (원인) -> 수능 1등급 (결과)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할 만한 인과관계의 예시를 하나쯤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21. 밑줄 친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1. Psychologist Mihaly Csikszentmihalyi suggests that the common idea of a creative individual coming up with great insights, discoveries, works, or inventions **in isolation** is wrong.
- 2. Creativity results from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a person and his or her environment or culture, and also depends on timing.
- 3. **For instance, D1** if the great Renaissance artists like Ghiberti or Michelangelo had been born only 50 years before they were,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s.
- 4. Consider **also D2** individual astronomers: **Their discoveries could not have happened unless centur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telescope and evolving knowledge** of the universe had come before them.
- 5. Csikszentmihalyi's point is that we should devote as much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a domain as we do to the people working within it, as only this can properly explain how advances are made.
- 6. Individuals are only "a link in a chain, a phase in a process," he notes.

* patronage: 보호, 후원, 찬조

- ① Individuals' creativity results only from good fortune.
- ② Discoveries can be made only due to existing knowledge.
- ③ One's genius is a key element of a series of breakthroughs.
- ④ Individuals receive no credit for their creative achievements.
- ⑤ **Individual creativity emerges only in its necessary conditions.**

중요체크 : 21번은 신유형이 아니라 그냥 대의과악 유형.

3번 문장의 for instance를 보고, 1번과 2번 문장에 집중 / 예시가 더 어려움 : 1번, 2번 문장이 General(포괄/종합/추상)이고 3번과 4번 문장은 Detail(구체/예시/원인)에 해당함.

21번은 겉으로 볼 때 신유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단순 대의과악 유형임. 그 증거로 선지 ② Discoveries can be made only due to existing knowledge.가 오답인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내용은 4번 문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번 문장은 D2(두 번째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언급은 됐지만 주제는 아닌 것' = 전형적인 '대의과악 유형의 오답 선지'입니다.

21. [출제 의도] 어구 의미

- 1. 심리학자 Mihaly Csikszentmihalyi는 창의적인 개인이 혼자서 위대한 통찰력, 발견물, 작품 또는 발명품을 생각해낸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 2. 창의성은 어떤 사람과 그의 환경 또는 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또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 3. 예를 들어, Ghiberti나 Michelangelo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들이 태어난 시기보다 단지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위대한 업적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구체화해 줄 예술 후원의 문화는 자리를 잡지 않았을 것이다.
- 4. 또한 개별적인 천문학자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 세기에 걸친 망원경의 기술적인 발전과 우주에 관한 진화하는 지식이 그들 이전에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발견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 5. Csikszentmihalyi의 요점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 분야의 발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지 이것만이 진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적절히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개인은 단지 '사슬의 한 연결 고리,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그는 언급한다.

- ① 개인의 창의력은 오직 행운에서 비롯된다.
- ② 발견은 단지 기존의 지식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 ③ 사람의 천재성은 일련의 획기적인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 ④ 개인은 자신의 창의적인 업적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 ⑤ 창의성은 오직 그것이 필요한 조건에서만 나타난다.

-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 in isolation 홀로
- fund 자금을 제공하다
- astronomer 천문학자
- devote (노력·시간·돈을) ~에 바치다[기울이다]
- domain (지식·활동) 분야, 영역
- properly 적절히
- phase 단계, 국면
-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2. **For example, D1** in most critics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
3.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4. It **also D2**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
5. Critiques of mass culture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6.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 and the mass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

* vulgar: 저속한, 서민의 **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① critics'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 and its effects

-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 in soap operas and films
-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
-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
-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

중요체크 : 대의과약 유형은 G에 집중하자.

EBS 기준 정답률 41% ㄷㄷㄷ.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ㄸ

2번 문장 이후로, 지문 이해가 잘 된 학생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틀렸거나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겨우 맞힌 학생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내용(G)과 예시(D)의 구별' 23번은 주제 문제입니다. D(구체/예시/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문제를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다시 읽어야 했다면, 1번 문장을 서너 번 반복해서 봤으면 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주제 -> 예시] 지문 구조가 for example을 통해서 보이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의 지문은 최근 평가원 문제에선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문은 문장 자체가 약간 어렵다보니 출제자들 입장에선 '이렇게 내도 애들이 틀리겠지 ㅋㅋ'라는 생각에서 내지 않았을까 해요.

그럼에도 일단은 다 읽었어야 합니다. 선지 1번에 "effect"가 지문에 있는지 찾았어야 하니까요. 그게 6번 문장에 있었습니다.

23. [출제의도] 주제 추론

1.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2.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3. 이런 거부는 다시, '훌륭한' 취향의 정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그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4.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5. 대중문화의 비평가들은 항상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6. 그런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하여, 군중의 인지도 무취향적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에 위계 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 ① 대중적 취향에 대한 비평가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그것의 영향
- ② 연속극과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계층에 대한 비판
- ③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작용
- ④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 ⑤ 대중의 고상한 취향을 확인하는 비평가들의 경향

- afford 제공하다
- refined 고상한
- champion 옹호하다
- critique 비평
- self-reflexivity 자기 반영성
- distance 거리를 두다
- suspect ~이 아닐까 생각하다
- subjectivity 주관성
- feminine 여성의
- corruption 타락
- hierarchical 계층의, 계급의
- aesthete 심미주의자

1번 문장 이해 방식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이 문장이 어려웠다면 아래를 잘 보세요.

1950s critic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

/ separate A from B : A와 B를 분리하다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 /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 /

afford : ~할 여유가 있다, 제공하다 : 여기에선 '제공하다'는 의미로 쓰임.

afford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mass를 통해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대중이 느끼는 거고 비평가는 그러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한다'고 받아들였음 됩니다.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 refine 정제하다, 세련되게 하다.

정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볼게요.

원유가 있습니다. 원유 자체는 [사용가능 / 사용불가]?

사용 불가능하죠. 이것을 끓여서 '정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제품이 나오는 거죠.

원유 : 쓸모없음 -> 정제과정 -> 쓸 수 있는 제품

이 개념을 그대로 사람이나 다른 것에 적용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5살 때 가출하고 정글로 들어가서 늑대와 함께 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아이가 다시 인간 사회로 들어왔을 때 과연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취업이 될까요?

어려울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해요. 가정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을 받아야만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이 바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정제과정'인 것입니다.

늑대소년 : 취업 안 됨 -> 교육(=refine) -> 유용한 인재

이렇게 refine이라는 단어는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 그 사회에서 높이 평가하는 가치를 지니게 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이 부분에서 refined는 대중이 아닌 비평가에 해당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한 refined에 기초한 판단도 비평가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 1.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so starvation is a kind of disvalue often found in nature.
- 2. It also is part of the process of selection ①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 3. Starvation helps filter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those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② themselves and their young.
- 4.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 ③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and eventually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임.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쉬워요.
 그럼 by which = by the process of selection
 = (자연) 선택 과정에 의해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 by the process of selection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자연 선택 과정에 의해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한다 -> 문장 구조와 해석이 완벽함!

원래 way 다음에 수식어가 나오고 그 중 to-R가 가장 많이 나옴

- 5. Thus starvation is a disvalue that can help make ④ possible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 6. Starvation can be of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

⑤ What some organisms must starve in nature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

완전 VS 불완전을 구별하는 팁
 주어가 없으면 무조건 불완전
 목적어가 없을 때는 해석을 통해 완전/불완전 구별
 왜냐하면 많은 동사가 자/타동사 둘 다 쓰이기 때문에.

ex) A : What do you do?
 B : I study.

목적어가 없어도 별 문제 없죠? 그럼 완전한 걸로.

some organisms must starve / in nature
 what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목적어는 없지만, 해석해보면 괜춘.
 "일부 유기체는 굶어 죽어야 한다 / 자연에서"
 그래서 '완전' 그래서 [what + 완전한 절]의 구조이므로 what은 틀렸음. 정답

29. [출제의도] 문법성 판단

- 1. 모든 유기체가 생존에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기아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반가치(反價値)이다.
- 2. 그것은 또한 생물학적 진화가 가능하게 되는 선택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 3. 기아는 살아남기에 덜 적합한 것들, 즉 자신과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먹이를 찾는 수완이 모자라는 것들을 걸러 내는 데 도움을 준다.
- 4. 몇몇 상황에서 기아는 유전적 변종들이 종의 개체군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결국에는 이전의 종을 대신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 5. 따라서 기아는 더 큰 다양성이 주는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치이다.
- 6. 기아가 고유한 반가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실용적인, 즉 도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7. 일부 유기체들이 자연에서 기아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 8. 기아가 때로 좋은 목적에 공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확고하게 진실이다.

- organism 유기체
- sufficient 충분한
- starvation 기아, 굶주림
- evolution 진화
- filter out ~을 걸러 내다
- resourceful 수완이 있는, 기력이 있는
- pave the way 길을 열어 주다, 상황을 조성하다
- variant 변종
- take hold 장악하다
- emergence 출현
-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 instrumental 도구적인, 도움이 되는
- even as ~하는 바로 그 순간
- intrinsic 고유한, 내재적인
- regrettable 유감스러운, 가여운

3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For every toxic substance, process, or product in use today,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 either already in existence, or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2. In almost every case, the safer alternative is (A) [available / unavailable] at a comparable cost.
3. Industry may reject these facts and complain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but history sets the record straight.
4. The chemical industry den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alternatives to ozone-depleting chemicals, (B) [predicting / preventing] not only economic disaster but numerous deaths because food and vaccines would spoil without refrigeration.

B부분은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은 주어를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인 chemistry industry를 수식했어야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화학 업계에서는 대안 사용의 경제적 재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고 이것에 어울리는 단어는 predict.

덧붙여,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겠죠.

B 부분이 원칙적으로 주어를 꾸미는 게 맞는데 그러면 that절의 주어인 practical alternatives를 꾸밀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B(predicting/preventing)가 실용적 대안을 설명할 수 있다면, 화학 업계가 경제적 재앙을 [예측하다 / 막다] 둘 중 하나의 의미가 성립해야 하는데, “실용적 대안이 경제적 재앙을 예측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죠.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의미적 조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B가 실용적 대안을 꾸미는 게 아니라 화학 업계를 꾸민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5. They were wrong.
6.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itially denied that cars caused air pollution, then claimed that no technology existed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and later argued that installing devices to reduce air pollution would make cars extremely expensive.
7. They were wrong every time.
8. The pesticide industry argues that synthetic pesticides are absolutely (C) [necessary / unnecessary] to grow food.
9. Thousands of organic farmers are proving them wrong.

* deplete: 고갈시키다 ** synthetic pesticide: 합성 살충제

① available predicting necessary

30. [출제의도] 어휘의 적절성

1. 오늘날 사용 중인 모든 독성 물질, 공정, 혹은 제품에는 — 이미 존재하거나 인간의 지력, 창의력, 그리고 노력의 적용을 통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다.
2. 거의 모든 경우에, 더 안전한 대안이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A)[있다 / 없다].
3. 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높은 실행 비용에 대해 불평할지도 모르지만, 역사가 그런 내용을 바로잡는다.
4. 화공업계에서는 냉장하지 않으면 식품과 백신이 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망자를 (B)[예측 / 예방] 하면서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 물질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5. 그들은 틀렸다.
6.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에 자동차가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부인하였고, 그다음에는 자동차로부터의 오염을 줄이는 어떤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나중에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7. 그들은 매번 틀렸다.
8. 살충제 업계에서는 합성 살충제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C)[필요 / 불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9. 수많은 유기농 농부들은 그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다.

- toxic 독성이 있는
- alternative 대안
- application 적용
- ingenuity 창의력
- comparable 비슷한
- set the record straight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다
- ozone-depleting 오존을 고갈시키는
- refrigeration 냉장

3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1. Among the most fascinating natural temperature-regulating behaviors are those of social insects such as bees and ants.
2. These insects are able to maintain a nearly constant temperature in their hives or mounds throughout the year.
3. The constancy of these microclimates depends not just on the location and insulation of the habitat, but on _____.
4. When the surround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activity in the hive decreases, which decreases the amount of heat generated by insect metabolism.
5. In fact, many animals decrease their activity in the heat and increase it in the cold, and people who are allowed to choos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hot or cold environments adjust their workload precisely to body temperature.
6. This behavior serves to avoid both hypothermia and hyperthermia.

* insulation: 단열 ** hypothermia: 저체온(증)
 *** hyperthermia: 고체온(증)

- ① the activity of the insects in the colony
- ② the interaction with other species
- ③ the change in colony population
- ④ the building materials of the habitat
- ⑤ the physical development of the inhabitants

중요체크 : 인과관계

어렵지 않은 문제이나, 이 자료는 수능을 잘보기 위한 팀이므로 유용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A depend on B : A는 B에 달려있다.
라고 할 때 A와 B는 각각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가령 나의 1등급은 어휘력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어휘력이 원인 / 1등급이 결과죠.

그러니 A는 결과 / B는 원인입니다.

그럼 _____ (원인) -> constancy of these microclimates (결과)

의 구조가 되고 지문을 통해 constancy of these microclimates 의 원인을 찾으면 답입니다.

depend on은 33번에서 또 나옵니다. 원래 자주 나와요. 앞으로 depend on 이 들어간 문장 이해가 안 되거나, 선지에 있거나 빈칸 근처에 등장할 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져보세요. 바로 해결될 겁니다.

31. [출제의도] 빈칸 추론

1. 가장 흥미 있는 자연의 체온 조절 행동 중에는 벌과 개미와 같은 사회적 곤충들의 행동이 있다.
2. 이 곤충들은 일 년 내내 자신들의 벌집이나 개미탑에서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3. 이러한 미기후의 지속성은 서식지의 위치와 단열뿐만 아니라, _____에도 달려 있다.
4.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벌집 안에서의 활동은 줄어드는데, 이는 곤충의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양을 감소시킨다.
5. 사실상, 많은 동물은 더위 속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줄이고 추위 속에서는 활동을 늘리는데,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신체적 활동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들의 작업량을 정확하게 체온에 맞추어 조절한다.
6. 이러한 행동은 저체온증과 고체온증을 둘 다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군체 내에서 하는 이 곤충들의 활동
- ② 다른 종들과의 상호 작용
- ③ 군체 개체 수의 변화
- ④ 서식지의 조성 물질
- ⑤ 서식 동물의 신체 발달

- fascinating 아주 흥미 있는, 매력적인
- maintain 유지하다
- hive 벌집
- mound개미탑, 흙더미
- constancy 지속성
- microclimate 미기후(특히, 주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정 좁은 지역의 기후)
- insulation 단열 (처리)
- metabolism 신진대사
- adjust 조절하다, 맞추다
- precisely 정확하게

그 다음, constancy of these microclimates 에 대한 해석입니다.

constancy는 “지속성”이란 의미로 문맥상 ‘곤충들의 체온 지속 = 곤충의 체온 유지’를 의미합니다.

microclimates는 “미기후”란 의미로 여기서 이 단어를 몰랐거나 문맥상 이해가 안 됐다면 그냥 삭제하고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읽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these가 있기 때문이죠.

these는 지시어의 일종으로, 분명 앞에 있던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these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these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알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these + 모르는 단어 = these

이건 these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시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시어 + 모르는 단어 = 지시어

수능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지시어와 함께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출제자들이 단어 난이도를 조정할 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지시어와 함께 있다면 굳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혼자 추론했습니다. 어차피 이 단어 몰라도 지시어만 잘 파악하면 문맥 파악이 될 거니까요.

3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1. Although most people, including Europe’s Muslims, have numerous identities, few of these are politically salient at any moment.
2. It is only when a political issue affects the welfare of those in a particular group that _____.
3. For instance, when issues arise that touch on women’s rights, women start to think of gender as their principal identity.
4. Whether such women are American or Iranian or whether they are Catholic or Protestant matters less than the fact that they are women.
5. Similarly, when famine and civil war threaten people in sub-Saharan Africa, many African-Americans are reminded of their kinship with the continent in which their ancestors originated centuries earlier, and they lobby their leaders to provide humanitarian relief.
6. In other words, each issue calls forth somewhat different identities that help explain the political preferences people have regarding those issues.

* salient: 두드러진

- ① identity assumes importance
- ② religion precedes identity
- ③ society loses stability
- ④ society supports diversity
- ⑤ nationality bears significance

중요체크 : ‘정답 찾자’가 안 되는 상황에선, ‘오답이 아닌 걸 찾자’

연계 문제로 답이 기억나면 바로 맞히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읽고 풀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1번이 정답처럼 안 보인다는 겁니다. assume이 ~을 취하다, 떠다 라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죠.

이런 선지를 모션(모르는 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션은 출제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단어 공부를 많이 해도 선지에 모르는 표현은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게 출제의도니까요. 그러니 이런 모션을 단어 공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풀이 방식의 차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오답의 근거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오답이 아닌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오답의 근거가 있나요? 아닐 겁니다. 그냥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뭔가 영이적 표현이라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오답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류.

2~5번은 모두 오답의 근거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2. [출제 의도] 빈칸 추론

1. 비록 유럽의 이슬람교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정체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들 중에서 언제 어느 때나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정체성은 거의 없다.
2. _____은 바로 어떤 정치적 문제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경우뿐이다.
3. 예를 들어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성들은 성을 자신들의 주된 정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4. 그런 여성들이 미국인인지 이란인인지, 혹은 그들이 가톨릭 신자인지 개신교도인지의 여부는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다.
5. 마찬가지로 기근과 내전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수세기 이전에 자기 조상들이 기원했던 대륙과의 혈족 관계가 생각나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6. 다시 말해서 각각의 문제는 그 문제들에 관해 사람들이 가지는 정치적 선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소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이끌어낸다.

- ① 정체성이 중요성을 띠는 것
- ② 종교가 정체성에 우선하는 것
- ③ 사회가 안정성을 잃는 것
- ④ 사회가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
- ⑤ 국적이 중요성을 갖는 것

- numerous 다수의, 매우 많은
- principal 주된, 주요한
- famine 기근
- civil war 내전
- sub-Saharan 사하라 사막 이남의
- kinship 혈족 관계, 친척 관계
-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 touch on ~에 관계하다
- lobby 압력을 가하다
- humanitarian 인도주의의
- relief 구호 (물자)
- call forth ~을 이끌어 내다
- regarding ~에 관해

정리하면

1번은 오답인가? 모른다. 그냥 단어를 몰라 -> 보류

2번은 오답인가? 그렇다

3 4 5 번은 오답인가? 그렇다

-> 그럼 1번이 정답이지롱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문제는 수능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신이 찍어서 맞힌 게 많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풀라고 내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출제의도가 그렇다는 걸 알면 시험장에서 걱정을 덜 수 있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Food unites **as well as** distinguishes eaters **because** what and how one eats forms much of one's emotional tie to a group identity, be it a nation or an ethnicity.

A as well as B : B뿐만 아니라 A도 -> A가 문맥상 더 중요함.

because : 당연히 인과관계

그럼 because절 (원인) -> 음식이 사람들을 통합한다 (결과)

because절 : (간단하게 말하면) 음식이 그룹 정체성 형성

2. The famous twentieth-century Chinese poet and scholar Lin Yutang remarks, "Our love for fatherland is largely a matter of recollection of the keen sensual pleasure of our childhood. The loyalty to Uncle Sam is the loyalty to American doughnuts, and the loyalty to the *Vaterland* is the loyalty to *Pfannkuchen* and *Stollen*."

3. Such keen connection between food and national or ethnic identification clearly indicates the truth that cuisine and table narrative occupy a significant place in the training grounds of a community and its civilization, and thus,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are vital to _____.

4. **In other words**, the destiny of a community **depends on** how well it **nourishes** its members.

* nourish: 기르다

- ① an individual's dietary choices
- ② one's diverse cultural experiences
- ③ one's unique personality and taste
- ④ **a community's wholeness and continuation**
- ⑤ a community's dominance over other cultures

중요체크 : 내가 이해 못하는 문장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출제의도라는 걸 알아. 그럼 다른 학생들도 다들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음.

2번 문장은 해석 안 되는 걸 전제로.

4번 문장에 in other words 나옴. 논리적으로 in other words의 앞뒤 내용이 같은 것. 그럼 4번 문장이 빈칸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함.

4번 문장은 커뮤니티 운명 (결과) / depends on / how절 (원인)

(depend on에 대해선 31번 참고)

그리고 how절에 nourish가 보였어야 함. 이 지문은 음식에 대한 얘기이니.

음식(원인) -> 커뮤니티 운명 (결과)
이 내용에 해당하는 선지는 4번 뿐임

운명이라는 말은 지속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음. 운명을 다했다 = 지속을 끝냈다.

33. [출제 의도] 빈칸 추론

1. 음식은 먹는 사람을 구별 지을 뿐만 아니라 결속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람이 먹는 것과 먹는 방식이, 그 정체성이 국가든 민족의식이든, 집단 정체성에 대한 그 사람의 정서적 유대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2. 저명한 20세기 중국의 시인이자 학자인 Lin Yutang은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대개 우리의 유년기에 대한 육체적 감각의 강렬한 만족을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충성은 미국 도넛에 대한 충성이고, '조국'에 대한 충성은 'Pfannkuchen(도넛의 일종)'과 'Stollen(빵의 일종)'에 대한 충성입니다."라고 말한다.

3. 음식과 국가 혹은 인종과의 동일시간의 그런 강한 연관성은 음식과 요리 이야기가 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먹고, 요리하고,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_____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 준다.

4. 다시 말하자면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잘 그 구성원들을 기르는지에 달려 있다.

- ① 한 개인의 식단 선택
- ② 사람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
- ③ 사람의 특유한 성격과 미각
- ④ 한 공동체의 완전함과 지속
- ⑤ 한 공동체의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성

- distinguish 구별 짓다, 구분하다
- tie 유대, 이어주는 것
- ethnicity 민족의식, 민족
- 성 recollection 기억, 회상
- keen 강한, 강렬한
- sensual 육체적 감각의, 관능적인
- loyalty 충성, 충실
- Uncle Sam 미국 정부
- Vaterland 조국
- ethnic 인종의, 민족의
- identification 동일시
- occupy 차지하다
- significant 중대한
- civilization 문화, 문명
- vital 지극히 중요한
- destiny 운명

3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 1. Modern psychological theory states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is a matter of construction, not reproduction, which means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akes the form of the interpretation of data coming from the outside and generated by our mind.
- 2. For example, the perception of a moving object as a car is **based on** an interpretation of incoming data within the framework of our knowledge of the world.

based on 하나만 잘 알아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A is based on B : A는 B에 기초한다고 하면 A와 B는 각각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1등급 is based on 어휘력
나의 1등급은 나의 어휘력에 기초한다.
A가 결과 / B가 원인

2번 문장은
이해 is based on 데이터 해석

고로 해석 (원인) -> 이해 (결과)

그리고 perception은 원래 이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

인지 = 인식 = 이해 = 알다

아래 3번과 4번 문장을 시험장에서 이해한 학생은 드물 것입니다. 3번과 4번을 몰라도 문제는 맞힐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 3. While the interpretation of simple objects is usually an uncontrolled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more complex phenomena, such as interpersonal situations, usually requires active attention and thought.

이해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하고(2번 문장) 그러려면 attention and thought 필요함
attention/thought -> 해석 (-> 이해)

- 4.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that it is knowledge possessed by the individual that determines which stimuli become the focus of that individual's attention, what significance he or she assigns to these stimuli,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r whole.

이해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하고 (2번 문장)
해석을 하려면 attention and thought가 필요하고 (3번 문장)
attention을 가지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4번 문장)

지식 -> attention (-> 해석 -> 이해)

34. [출제 의도] 빈칸 추론

- 1. 현대의 심리학 이론은 이해의 과정은 재생이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해의 과정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의 해석이라는 모습을 취한다는 말이다.
- 2.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를 차라고 인식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는 틀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근거한다.
- 3. 간단한 물체의 해석은 대개 통제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대인 관계의 상황 같은 더 복잡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대개 적극적인 주의 집중과 사고를 필요로 한다.
- 4. 심리학 연구는 어떤 자극이 그 개인의 주위에 초점이 되는지, 그 사람이 이 자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자극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5.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이 주관적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 '객관적인' 세계인데, 우리는 _____
_____ 외에는
그 어떤 세계도 알 수 없다.

- ① 사회 관습을 통해 우리에게 놓인 현실
- ② 우리 자신의 해석의 결과로 알고 있는 세계
- ③ 우리의 인식 틀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이미지의 세계
- ④ 우리 자신의 해석과 독립된 외부 세계
- ⑤ 우리 자신의 해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물리적 세계

-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 reproduction 재생, 재현, 재생산
- perception 인식, 지각
- framework 틀, 구조
-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는
- phenomenon 현상
- stimulus 자극
- significance 의미, 중대성
- assign 부여하다, 주다
- subjective 주관적인
- objective 객관적인

이걸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3번과 4번을 버리고 5번에만 집중하세요. 전형적인 노이해지문입니다.

5. This subjective world, interpreted in a particular way, is for us the “objective” world; we cannot know any world other than _____.

- ① the reality placed upon us through social conventions
- ② **the one we know as a result of our own interpretations**
- ③ the world of images not filtered by our perceptual frame
- ④ the external world independent of our own interpretations
- ⑤ the physical universe our own interpretations fail to explain

우리는 빈칸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빈칸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빈칸에는 ‘해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고 정답은 2번

3~5번은 반대 내용 / 1번은 언급 없음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중요체크 : 인과관계

오답률 2위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다른 선지는 모두 여행 얘기인데, 2번 선지는 공장품 운송 얘기구나. 그래서 2번 선지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왜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까요?

사실 2번 선지의 내용 자체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운송이 여행을 발달시켰다 (D1)

운송을 통해 공장 제품도 널리 퍼졌다 (D2)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이 지문의 주제는 운송 발달의 영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선지는 지문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무관한 문장인 정확한 이유는 아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1. While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y shape where we travel today, in the early eras of travel, it determined whether people could travel at all.

2. ①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llowing modern tourism to develop on a large scale and become a regular part of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factor 는 원인입니다.

나의 어휘력 is an important factor in 수능 1등급.

나의 어휘력은 수능 1등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로 be 동사는 동격입니다. 특히 be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My job is a teacher.

my job = teacher

그럼 transportation is factor 라고 하면

운송은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운송 발달 (원인) -> 관광 발달 (결과) 가 됩니다.

3. ②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industrialization that **led to** more efficient transportation of factory products to consumers than ever before.

이 문장에선, 산업화가 원인이죠. 그리고 led to(결과를 야기하다)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는 결과일텐데, 그럼 산업화 (원인) -> 운송 발달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인과관계가 뒤바뀌어서 애가 무관한 문장이 되는 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운송을 원인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여행/관광이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 [출제 의도] 흐름과 무관

1. 교통 기반 시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행하는 '곳'을 정할 수 있지만, 여행의 초기 시대에는 사람들의 여행 가능 여부를 결정했다.

2. 교통의 발전과 향상은 현대의 관광 산업이 대규모로 발전해서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3.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공장 제품이 소비자에게 운송되게 만든 산업화였다.

4. 기술적진보가 지방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교통망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토대를 제공했고, 여행을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값싸게 만들었다.

5. 이것은 관광객을 창출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같은 관광 산업 기반 시설에서의 여타의 많은 변화를 유발했다.

6. 그 결과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관광 산업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 era 시대
- advance 진보, 향상
- expansion 확대, 팽창
- prompt 유발하다, 촉발하다
- a host of 많은, 다수의
- accommodation 숙박 시설
-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 precondition 전제 조건

4. ③ Technological advances provided the basis for the explosive expansion of local, regional, and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s and made travel faster, easier, and cheaper.
5. ④ This not only created new tourist-generating and tourist-receiving regions but also prompted a host of other changes in the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accommodations.
6. ⑤ As a result, the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has been considered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ourism.

* infrastructure: 산업 기반 시설

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Most of us have a general, rational sense of what to eat and when — there is no shortag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1. (A) *Emotional eating* is a popular term used to describe eating that is influenced by emo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2. Feelings may affect various aspects of your eating, including your motivation to eat, your food choices, where and with whom you eat, and the speed at which you eat.
3. Most overeating is prompted by feelings rather than physical hunger.
4. (B) Yet there is often a disconnect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5. We may have the facts, but decisions also involve our feelings.
6. Many people who struggle with difficult emotions also struggle with eating problems.
7. (C) Individuals who struggle with obesity tend to eat in response to emotions.
8. However, people who eat for emotional reasons are not necessarily overweight.
9. People of any size may try to escape an emotional experience by preoccupying themselves with eating or by obsessing over their shape and weight.

* obsess: 강박감을 갖다

- | | |
|-------------------|-------------------|
| ① (A) - (C) - (B) | ② (B) - (A) - (C) |
| ③ (B) - (C) - (A) | ④ (C) - (A) - (B) |
| ⑤ (C) - (B) - (A) | |

이 문제가 어려웠다고 말할 때 논리성이 주로 언급되는데, 사실 이 지문의 논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원인은 그냥 해석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456번 문장 -> 123번 문장 -> 7번 문장은 모두 감정이 먹는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8 9번 문장은 감정이 먹는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89번이 456 123 7번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36. [출제 의도] 글의 순서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언제 먹을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지 않다.

1. (A) '감정적 식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모두에 의해 영향받는 식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2. 감정은 여러분의 식사 동기, 여러분의 음식 선택, 어디서 누구와 여러분이 식사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하는 속도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식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대부분의 과식은 신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유발된다.
4. (B)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에는 흔히 단절이 존재한다.
5.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결정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수반한다.
6. 힘겨운 감정과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한 섭식 문제와 씨름한다.
7. (C) 비만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반응하여 먹는 경향이 있다.
8. 그러나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이 반드시 과체중인 것은 아니다.
9. 신체 크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먹는 것에 몰두하거나 자기 몸매와 몸무게에 대해 강박감을 가짐으로써 감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 rational 합리적인
- shortage 부족, 결핍
- term 용어
- overeat 과식하다
- prompt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 disconnect 단절
- struggle with ~와 씨름하다
- obesity 비만
- overweight 과체중(의)
- preoccupy 열중케 하다

처음에 B 번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어려웠다면 ‘재진술’을 더 연습해보길 바랍니다. 주어진 문장은 ‘우린 많이 안다’ 4번 문장은 ‘그러나 아는 것과 하는 건 다르다 (=많이 알아봤자 실제 행위는 아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B 다음에 A로 갔다면 별 어려움 없이 문제를 맞혔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B 다음에 C로 갔을 경우 (6번과 7번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문을 읽으며 6번 다음에 7번은 맞지만, C 다음에 A는 틀린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B -> C (O)

B -> C -> A (X)

이 지점은 두 가지로 접근해서 결국 문제를 맞힐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456 123 7 은 같은 방향의 내용 / 89는 반대 내용 인 걸 알고, 문장 순서를 다시 B -> A -> C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 C -> A로 읽었을 때 오히려 3번 문장과 7번 문장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역시 순서를 B -> A -> C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ver since the first scientific opinion polls revealed that most Americans are at best poorly informed about politics, analysts have asked whether citizens are equipped to play the role democracy assigns them.

- 1. (A) **Such factors**, however, can explain only the misinformation that has always been with us.
- 2. The sharp rise in misinformation in recent years has a different source: our media.
- 3. "They are making us dumb," says one observer.
- 4. When fact bends to fiction, the predictable result is political distrust and polarization.
- 5. (B) It's the difference between ignorance and irrationality.
- 6. Whatever else one might conclude about self-government, it's at risk when citizens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 7. Our misinformation owes partly to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our tendency to see the world in ways that suit our desires.
- 8. (C) However, there is something worse than an inadequately informed public, and that's a misinformed public.
- 9. It's one thing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and realize it, which has always been a problem.
- 10. It's another thing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but think they know it, which is the new problem.

* poll: 여론 조사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중요체크 : 9평 순사는 내용상 연결이 중요한 문제가 많음. 그럼에도 지시어와 연결어가 나오면 이걸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함.
 시험장에선,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지시어/연결어로 풀리는지 혹은 내용상 연결로 풀리는지 혹은 둘 다 일정 부분 작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그래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
 결론적으로, 내용을 위주로 읽다가 지시어와 연결어가 나오면 여기에 초집중.
 순삽문제는 지시어/연결어 어법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37. [출제 의도] 글의 순서

첫 번째 과학적 여론 조사가 대부분의 미국인이 정치에 대해서 기껏해야 형편 없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힌 이후에,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는지 분석가들이 물었다.

- 1. (A) 하지만 그런 요인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 온 잘못 아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
- 2. 최근에 잘못 아는 것의 급격한 증가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미디어이다.
- 3.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한 논평자는 말한다.
- 4. 사실이 허구에 굴복하면, 예견 가능한 결과는 정치적 불신과 대립이다.
- 5. (B) 그것은 무지와 불합리 간의 차이이다.
- 6. 자치에 관해 다른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리든, 시민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모르는 경우는 위험하다.
- 7.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갈망에 맞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향을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의 탓이다.
- 8. (C) 그런데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대중보다 더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대중이다.
- 9. 시민들이 어떤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는 경우가 하나의 경우인데, 그것은 늘 문제가 되어 왔다.
- 10. 시민들이 어떤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인데, 그것은 새로운 문제이다.

- at best 기껏해야
- be equipped to do ~할 능력이 있다
- assign 부여하다, 주다
- misinformation 잘못 알고 있음
- bend 굴복하다, 구부러지다
- polarization (의견의) 대립
- irrationality 불합리
- self-government 자치, 민주 정치

B의 factors와 A의 such factors를 통해 B -> A는 확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지 내용상 연결성도 봐야 하구요.

그럼 남은 건, 처음에 나오는 게 B냐, C냐 겠죠.

주어진 문장은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 poorly informed 정보를 받지 못했다(=정치를 모름)는 내용이고, C는 “그러나 정보를 받지 못한 것(=정치를 모름)보다 더 안 좋은 건 misinformed”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8번 문장의 inadequately가 눈에 딱 들어왔어야 하는데요. 애는 불충분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adequate (많다는 느낌의) 충분한
inadequate 불충분한

그럼 이 지문은

정치를 모르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을 대비시키고 후자가 더 안 좋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정치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정치를 모름)’라는 개념을 poorly informed = inadequately informed 로 표현한 것이고 이걸 알아차려서 주어진 문장과 8번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알면 맞힐 수 있습니다.

3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Moreover,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ge 18 and older derive benefits from various transfer programs, while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 Both the budget deficit and federal debt have soared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 (1) During 2009-2010, nearly 40 percent of federal expenditures were financed by borrowing.
- (2) The huge recent federal deficits have pushed the federal debt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ar II.
- (3) The rapid growth of **baby-boomer retirees**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will mean higher spending levels and larger and larger deficits for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 (4) **All of these factors** are going to make it extremely difficult to slow the growth of federal spending and keep the debt from ballooning out of control.
- (5) Projections indicate that the net federal debt will rise to 90 percent of GDP by 2019, and many believe it will be even higher unless constructive action is taken soon.

* deficit: 부족, 결손 ** federal: 연방의 *** soar: 급등하다, 치솟다

중요체크 : 지시어와 연결어 활용

서두에 언급했듯, 이 자료는 지문 이해가 깔끔하지 않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입니다. 위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찍는다 하더라도 답은 4번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게다가”를 포함한 문장이 먼저 나오고, all of these factors를 포함한 문장이 나중에 나오게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라는 의미를 갖는 연결어에 대해 살펴보면,

- G : 나는 비빔면이 좋다.
- D1 : 양념의 새콤한 사과 맛이 나를 미치게 한다.
- D2 : 게다가, 1인분의 양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한 젓가락 정도 부족한 느낌 있어서 다음에 다시 찾게 만든다.
- 모든 이런 요소들 덕에 나는 ‘일일 일비빔면’을 실행중이다.

“게다가”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는 ‘D 추가’하는 용법이며, “게다가”를 포함한 문장은 반드시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5번의 주어진 문장엔 moreover가 보이고, 4번 선지에 all of these factors가 보입니다. 그러니 찍더라도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38. [출제의도] 문장 넣기

더욱이, 18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소득) 이전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금을 얻어낸다.

- 최근의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 동안에 재정 적자와 연방 정부의 부채가 모두 치솟았다.
- 2009년~2010년 동안에 연방 정부 지출의 거의 40퍼센트가 대출에 의해 자금이 충당되었다.
- 최근의 막대한 연방 재정 적자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어진 기간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수준으로 연방 정부의 부채를 밀어 올렸다.
- 바로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의 빠른 증가는 사회 보장 연금과 노인 의료 보험 제도의 더 높은 지출 수준과 점점 더 커지는 적자를 의미할 것이다.
-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를 늦추고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불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 2019년쯤에는 연방 정부의 순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90퍼센트까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측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곧 건설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transfer 이전, 이동
- income tax 소득세
- budget deficit 재정 적자
- federal 연방 정부의
- soar 치솟다
- financial 재정의
- recession 경기 침체
- expenditure 지출
- finance 자금을 충당하다
- retiree 퇴직자
- constructive 건설적인

지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2번 선지까지 :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하다.

3번 선지 : (왜냐하면) 베이비부머 은퇴 D1

주어진 문장 : (또한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는 애들 D2

4번 선지 : 모든 이런 요소들 ~~

앞서 factor가 원인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3번 선지와 4번 선지가 재정적자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3점]

We become entrusted 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 1. Erikson believes that when we reach the adult years, several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timuli trigger a sense of generativity.
2. A central component of this attitude is the desire to care for others.
3. (1) For the majority of people, parenthood is perhaps the most obvious and convenient opportunity to fulfill this desire.
4. (2) Erikson believes that an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f adulthood is the emergence of an inborn desire to teach.
5. (3)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6. (4)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7. (5) By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primary caregivers to children through their long years of physical and social growth, we concretely express what Erikson believes to be an inborn desire to teach.

중요체크 : 이런 정도의 모호한 문제가 수능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용 연결을 잘 파악하기 위한 연습은 하자. 훈련 방법은 추후에 칼럼으로 올리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entrust는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중요한 부분에 등장한 걸 저는 처음 봤어요ㅠ 그러니까 수능 범위를 넘는 고난도 단어가 모평과 수능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반면, 39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네요.

역대 문장삽입 유형에서 최초로 지시어와 연결어가 아예 없이 순수하게 내용으로만 접근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극히 낮은 확률로, 반복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원에선 이의 제기에 좀 시달려야 하겠지만요.

순서와 삽입 유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인 지시어와 연결어 + 내용상 연결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것이죠.

원래 내용상 연결로는 특정 선지가 답이라는 걸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가원에선 지시어와 연결어를 집어넣어 100% 근거 있는 문제를 만들려 했던 것이죠. 최근 들어 내용상 연결이 더 중요한 문제가 간혹 등장하기도 했는데, 39번처럼 밀도 끝도 없이 내용으로만 푸는 문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능에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39. [출제의도] 문장 넣기

우리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르치는 일을 위임받게 된다.

- 1. Erikson은 우리가 성년에 이를 때, 몇 가지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자극이 '생식성'에 대한 인식을 촉발한다고 믿는다.
2. 이러한 태도의 한 가지 중심적인 구성요소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이다.
3. 대다수 사람에게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마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가장 분명하고 편안한 기회일 것이다.
4. Erikson은 성인기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의 출현이라고 믿는다.
5. 신체적으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일이 헌신적인 관계, 성인 생활 패턴의 정착, 그리고 업무 책임 떠맡기에 참여하는 일들과 결합할 때 우리는 이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
6. Erikson에 따르면,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식, 보호, 그리고 지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7. 아이들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일차적인 돌봄 제공자가 되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우리는 Erikson이, 가르치고자 하는 타고난 욕구라고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entrust 위임하다, 맡기다
stimulus 자극 (pl. stimuli)
trigger 촉발하다
generativity 생식성
distinguishing 독특한, 특유의
feature 특징
emergence 출현
committed 헌신적인
establishment 정착
assumption 떠맡기
primary 일차적인, 우선적인
concretely 구체적으로

그나마 지시어라고 볼 수 있는 게 we 인데 이걸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3번 선지의 we는 성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것도 부모가 되지 않냐고 반문하면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4번 선지의 we는 부모가 된 우리라고 할 수 있구요. 주어진 문장의 we도 문맥상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③) We become aware of this desire
 우리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when the event of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is joined with
 번식 사건(=부모가 되는 사건)과 조인할 때

the events of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the establishment of
 an adult pattern of living, and the assumption of job responsibilities.
 어른의 욕구

(④) According to Erikson, by becoming parents we learn
 우리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된다

that we have **the need to be needed by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의해 필요되어질 니즈를 우리 갖는다
 the need needed by others : **수동의 해석이 어색하면 능동으로 해석하세요.**
 by 이하 -> 주어처럼 / pp -> 능동처럼
 ->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할 니즈를

who depend on our **knowledge**, protection, and guidance.
 우리 지식에 의존하는 others = 우리의 자녀
 knowledge를 보는 순간 teach 개념과 연결하면 됩니다. 부모는 가르치고 아이는 부모의 지식에 의존하는 거죠. 물론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시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문장 : We become entrusted to teach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s, values, attitudes, skills, and information about the world.

우리 가르치는 걸 위임받는다.

흐름을 정리하면,

3번 : 부모가 되면서 티칭 욕구 느껴
 4번 : 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
 주어진 문장 :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를 가르칠 권한을 (사회로부터) 위임받는다.

40. [출제의도] 요약문 완성

1. 서 있는 수목으로서 숲의 사용과 숲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토착민에서 중앙정부와 서구의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르다.
2. 태도와 가치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상충하는 관리 전략의 뿌리에 놓여 있고 Chipko 운동과 같은 항의 집단들을 자극한다.
3. 예를 들어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지역의 경작자들을 숲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4. 다시 말해, 늘어나는 인구 압박과 경작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커지는 수요 아래에서, 숲을 경작된 계단식 농경지로 바꾸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산림벌채를 벌충하기 위해 계단식 농경지의 가장자리에 (농작물을) 심는 형태의 보상이 일어나고 있다.
6. 이것은 지역민의 필요와 관계없이 숲의 가치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국가적 관점, 토양 보존을 위해 땅 위에 덮여 있는 숲을 유지하려는 필요나 욕구, 그리고 생명 다양성과기후 변화의 목적을 위한 보호라는 세계적인 관점과 뚜렷이 대조된다.

토착민에게 숲은 (A)_____ 자원의 역할을 하지만, 지역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은 숲의 (B)_____을 우선시한다.

- perception 인식
- conflicting 상충하는
- stimulate 자극하다
- cultivator 경작자
- convertible 바꿀 수 있는
- cultivable 경작할 수 있는
- conversion 바꿈, 전환
- terrace 계단식 농경지
- extract 끌어내다, 추출하다
- compensation 보상
- edge 가장자리, 변두리
- make up for ~을 벌충하다
- clearance 산림벌채
- contrast with ~와 뚜렷이 대조되다
- irrespective of ~와 관계없이

알아두면 쓸데없는 배경 지식 : 모든 개체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원할 것입니다. 사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 사회라는 걸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사회도 생존/존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사회는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이전 세대가 터득한 것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 살아가게 되고 사회는 유지되겠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도 교육은 keep going on. 오히려 사회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교육은 더 중요해집니다. 사회 입장에선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니, 몇 년 후 이 사회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0세부터 6세 정도까진, 부모가 아기를 바로 옆에서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의 교육기관(=학교)에서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 교육의 역할을 위임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잘 가르친다는 건, 다시 말해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입장에선 그 사람이 아주 기특하겠죠. 그러니 무언가 사회적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부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고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 we have the need needed by others. 우린 모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 개개인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 가치가 더 높아지면 연봉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배경지식이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 하도 답답해 하길래 아는 대로 적어봤어요.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As a couple start to form a relationship, they can be seen to develop a set of constructs about their own relationship and, in particular, how it is similar or different 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2. The couple's initial disclosures involve them forming constructs about how much similarity there is between them and each other's families.
3. What each of them will remember is selective and (a) coloured by their family's constructs system.
4. In turn it is likely that as they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ies, there is a second process of editing whereby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is again (b) interpreted within their respective family of origin's construct systems.
5. The two sets of memories — the person talking about his or her family and the partner's edited version of this story — go into the 'cooking-pot' of the couple's new construct system.
6. Subsequently, one partner may (c) randomly recall a part of the other's story as a tactic in negotiations: for example, Harry may say to Doris that she is being 'bossy — just like her mother'.
7. Since this is probably based on what Doris has told Harry, this is likely to be a very powerful tactic.
8. She may protest or attempt to rewrite this version of her story, thereby possibly adding further material that Harry could use in this way.
9. These exchanges of stories need not always be (d) employed in such malevolent ways.
10. These reconstructed memories can become very powerful, to a point where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even about the simple (e) factual details of what actually did happen in their past.

* malevolent: 악의 있는

18.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Family Stories Disclose a Couple's True Faces
- ② **Shaping a Couple: Reconstructing Family Stories**
- ③ Reconstructing the Foundation of Family Reunion
- ④ Reconstruction of Love: Recalling Parents' Episodes
- ⑤ Beyond Couples' Problems: Reconstructing Harmony

19. 밑줄 친 (a)~(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1~42]

1. 한 커플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특히 그것(그들의 관계)이 그들의 부모의 관계와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에 대해 일련의 구성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2. 그 커플이 처음에 터놓는 이야기에서 그들은 그들과 각자의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성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3. 그들 각자가 기억하게 될 것은 선택적이고 그들 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에 의해 채색된다.
4. 결국 그들이 각자에게 자신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이 서로에게서 듣는 내용이 그들 각자의 원가족의 구성 개념 체계 내에서 다시 해석되는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있게 된다.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 이야기를 파트너가 편집한 버전이라는 두 세트의 기억이 그 커플의 새로운 구성 개념 시스템이라는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
5. 그 후, 한 파트너가 상대방의 이야기 일부분을 무작위로 상기하여 협상 전술로 쓸 수도 있다.
6. 예를 들어 Harry는 Doris에게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처럼 남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7. 이것은 아마 Doris가 Harry에게 했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8. 그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이야기의 이 버전을 다시 쓰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Harry가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더 나아가 자료를 추가하게 될 수도 있다.
9.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항상 그러한 악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될 필요는 없다.
10. 이러한 재구성된 기억들은 매우 강력할 수 있어서, 각 파트너가 그들의 과거에 실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의 간단한 사실적 세부사항에 대해서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Subsequently, one partner may (c) randomly recall a part of the other's story as a tactic in negotiations: for example, Harry may say to Doris that she is being 'bossy - just like her mother'.

중요체크 : 정답이 안 보이면 오답의 근거. 3번은 오답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42번 어휘 문제 : randomly의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협상 전략으로 하려면 무작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냐?' 이 정도입니다.

근거가 희박하다보니 이게 답이라는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게 있다고 봅니다. 최근 수능에선 '정답이 왜 정답이냐'를 묻는다고보다는, '오답이 아닌 게 정답이다'라는 느낌이 강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42번 문제 퀄리티가 어떻다는 말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3번 이외 나머지 선지는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이라고 했다면 잘 풀 겁니다. 찍었다는 느낌은 들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인 걸요. 이게 출제의도라는 걸 알면(=정답의 근거가 희박해서 오답을 소거해야 한다는 걸 알면)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3번 찍고 다른 문제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작년 9평 22번 주제 문제를 덧붙일게요. 정답률이 40% 정도 됐던 극악의 문제입니다.

2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insight is the result of a restructuring of a problem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leading to a different path to a solution heretofore unpredicted.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As a matter of fact,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s in solving the problem, leading to new information being brought in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to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in finding a solution, thus producing the Aha! Experience.

* heretofore: 지금까지

- ① disadvantages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 ② significance of analytical thinking in gaining insight
- ③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 ④ necessity of separating insight from analytical thinking
- ⑤ difficulty of acquiring in-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 ① 가족 이야기는 커플의 진짜 면모를 드러낸다.
- ② 커플 형성하기: 가족 이야기 재구성하기
- ③ 가족 재회 기반 재구성하기
- ④ 사랑의 재구성: 부모의 일화 상기하기
- ⑤ 커플들의 문제점을 넘어서: 조화 재구성하기

- construct 구성 개념, 생각, 구조물
- initial 처음의
- disclosure 터놓은 이야기, 폭로
- whereby (관계사) 그것에 의해
- subsequently 그 후, 계속해서
- tactic 전술
- negotiation 협상
- bossy 남을 쥐고 흔드는
- reconstructed 재구성된

일부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이란 그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다고 여겨지는 답보상태의 시기를 지낸 후 문제를 재구성한 결과라고 믿는다.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은 갑자기 발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측된 적 없는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경로를 제시해준다. 문제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사실, 사람은 경험으로부터 뺄어나와야 하고, 마음이 자유로이 배회하도록 내버려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연구들은 통찰력이 실은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줘 왔다. 문제의 재구성은 문제 해결시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도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도록 이끌어준다. 그 새로운 정보는 해결책을 찾을 때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할 수 있고, 그 결과 "아하!" 체험을 만들어 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3번 선지 때문입니다. 3번 선지는 왜 오답일까요?

본문의 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Nevertheless,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통찰력은 결과이고 분석적 사고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3번 선지는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통찰력의 공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원인이 되는 거죠! (수능 1등급에 있어서 내 어휘력의 공헌)

인과관계가 뒤바뀌어서 오답입니다. 이 선지에 무려 20만 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몰려서 정답률이 즉 내려갔었습니다.

이처럼 (전후)인과 관계가 등장하게 되면 그 문제는 킬러가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전후인과 관계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독해속도가 빨라지고 정답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글을 통해 소통하면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전달이 어렵습니다. 가독성 떨어지는 포맷임에도 여기까지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생각이 늙니다.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치열하게 생각해볼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